

2017년 두 번째 호 (통권 19호)

별마을 여름나기

Enjoy Summer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2017년 어느 덧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이란 말을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당연 휴가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의 휴가는 그저 생활권을 벗어나 떠나는 것이 아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처럼 회사 및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고 각자의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쓰이는 추세로 휴가를 즐기는 방법도 다양각색입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의 힐링의 시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요?

별마을에서는 지리산, 경주, 전주, 부산, 제주도 등 전국 각지로의 여행, 가족과 함께, 본인만의 시간 갖기 등등 각자의 방법을 통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신나게 놀고, 그 시간을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는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되는 휴가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앤드류 매튜)

이번 여름!! **함께**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힐링 휴가를 떠나는 건 어떨까요?

◎ 장아름 | 사무원

성촌주민자치회

“절 뽑아주신다면 자치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호 4번입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단상 앞에 선 장○○님의 주변으로 커다란 함성과 박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촌의집에서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올해 성촌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했습니다. 총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각자의 공약을 내세우며 주민자치회 발전에 앞장서는 대표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 선거유세를 하였습니다.

“기호 7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식사시간 식당 앞에서 유세를 하는 윤○○님. 한 번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를 공략하여 효과적으로 지지도를 쌓아갔습니다.



“제가 대표가 된다면 시원한 여름 나들이를 계획하겠습니다!”

산뜻한 공약을 제시하는 김○○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대비하여 여름 나들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가족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기호 6번 이○○님을 도와주세요. 같이 응원해주세요!”

유세를 도와주는 최○○님. 기호 6번의 공약이 마음에 든다면 자정해서 지지하는 가족분도 있었습니다. 흡사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기간과 규모면에서는 적을지언정 대표가 되기 위한 열정은 더 뜨거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세를 마치고 우리 마음을 담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찍은 소중한 한 표를 고이 접어 투표함에 넣으며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드디어 개표! 공정하게, 한 치의 거짓 없이 진행하기 위해 모두 모여 투표함을 개방하고 한 표씩 공개했습니다. 초반 비슷하게 출발하는 듯 싶었는데... 초반이 지나며 2명의 후보자가 엇치락뒤치락하며 경쟁을 하였습니다. 두 후보자의 접전으로 활호

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두 후보자는 초조한 표정으로 개표현황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2표가 남은 상황, 기호 5번과 기호 7번이 서로 7표로 득표수가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2표로 대표자가 결정이 되는 순간, 모두가 숨죽여 남은 2표가 발표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두근! 두근!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며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남은 2표 중 1번지는 “기호 7번 윤○○” 여기저기서 환호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한 표는 “기호 7번 윤○○” 여기저기서 “와~”, “축하해~” 등 기쁨과 축하를 전하는 말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에이~ 이럴 줄 알았어”, “○○는 좋겠네~”라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고 올해 성촌주민자치회의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대표가 선출되고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치회 내의 환경미화부를 만들어 우리 동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자치회의에서 직원이 하였던 사회자의 역할을 아직은 어색해하지만 자치회 주민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성촌의집 주민들은 다함께 자조적인 활동을 하며 성촌의집의 주민으로서, 나아가 십정2동의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어떤 큰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해주세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김기철 사회복지사]

1박 2일 강릉여행기

태은실 | 사회복지사

[출발 전날]

비가 내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선글라스도 쟁겨 놓았죠.

[4월 18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는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우리 모두는 외쳤어요.
강릉으로 GO! GO!



[강릉 가는 중]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으로 정체가 되었지만, 그것 역시 좋았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강릉으로 접어드니 하늘은 우리의 여행이 질투가 났는지 소나기가 내리고 햇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결국 빙방울이 커져 숙소로 바로 들어갔어요~ㅜㅜ



[강릉 첫째 날]

숙소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감탄사 연발. “와~” 설악산에 병풍 같은 바위, 줄줄줄 흐르는 개울, 오색 찬란 꽃들, 역시 강릉이구나를 느꼈죠ㅋ 짐을 풀고 바비큐 파티 준비로 가족분들, 직원 모두 분주했죠. 오랜만에 별마을 사람 모두 모여 맛있게 먹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를 보냈어요.



[강릉 둘째 날]

아침에는 옛 추억을 되살려 ‘보물찾기’를 했어요ㅋㅋ 모두 어떻게든 보물을 찾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어렵게 찾으면 “꽝!” 실망도 있었지만, 누군가 찾았을 때는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했어요. 그 후 짐을 쟁겨 숙소를 나와 바다가 보이는 정원으로 이동. 따뜻한 커피 한잔, 갓 구워낸 빵, 멋진 바다를 함께 하니 너무 좋았어요. 모두 하나가 되어 뛰어다니고, 구르고, 워가 그리 좋았는지 웃음이 떠나질 않았네요. 이 행복한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찰칵! 찰칵!” 사진 찍는 소리가 들리네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멋진 장소였어요.



[인천 가는 중]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아쉬운 마음을 이끌고 관광버스에 올랐어요. “바다야 잘 있어, 또 올게”라고 인사하고 우리의 보금자리 별마을로 출발하였습니다.



2017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떠났던 여행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입주 환영!

예쁜 집 구경오세요~ 별마을 체험홈!



동암역, 간석오거리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성촌의집에는 30여명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계속해서 '**투닥거리는 재미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스스로 집을 구하고자 하는 분, '**결혼**'하여 내 짹과 살고 싶은 분, 다른 곳에서 '**나 혼자 산다**'를 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최새롬 | 사회복지사**

이렇게 자립을 준비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홈(아파트)**을 두고 있습니다. 성촌의집과는 다른 동네에 위치해 있죠. **체험홈**은 훌로서기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는 어떤 곳인지 탐방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구하여 일하고, 자취생의 생활팁을 배우고, 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가계부를 쓰고, 공과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하고,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고 운동을 하고, 화재예방과 응급상황 시 대처에 대해 알아보며 마을주민들과 더불어 살아보는 겁니다.

아파트인 **체험홈**은 2개 흄으로 2017년에 입주방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흡은 약간의 도움이 있지만 일정기간 혼자 힘으로 살아보는 곳이고,
2흡은 조금 더 많은 도움을 통해 혼자 살아보는 것을 단기간 체험하기 위한 곳입니다.

새롭게 입주할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비어있던 **체험홈**을 곳곳이 확인하여 벽지와 장판을 바꾸고, 형광등을 갈고, 콘센트를 새로 연결하고[감전조심!], 샤워기 호스와 싱크대 수전도 교체하며 똑딱똑딱! 정비하여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7년 마지막 찬스! 놓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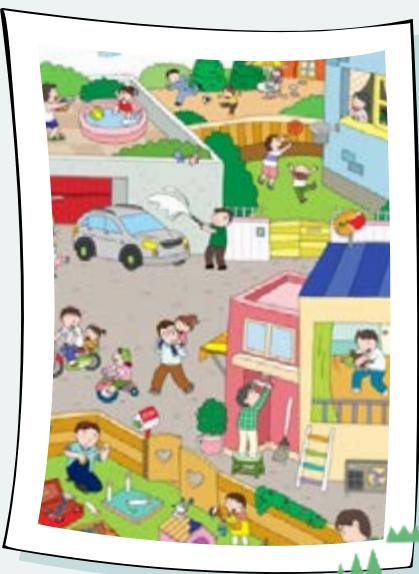
입주자 모집



자립하기 전에 걱정이 앞서나요?

자립을 준비하고, 혼자 힘으로 살게 된다면 어떨지 알고 싶으신가요?

당신을 위한 체험홈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별마을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시장상 수상



2017년 4월 20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장을 받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숭고한 박애, 봉사, 희생정신으로 장애인의 자립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공을 인정해 주셨다하지만, 이는 부족함이 많은 저에 대해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더욱 성촌의집 가족들을 위한 노력에 초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땀 흘리는 직장 동료 여러분들에 대한 공을 대표하여 받았기에 함께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신 마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더 맡은 소임에 정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선 조리원]

신입직원 최원준 사회복지사입니다



2017년 2월 1일 수요일.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첫 발을 들인 성촌의집 가족분들과 어색했던 첫 만남.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렀지만 뒤돌아보면 참 그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족분들과 다양한 추억들을 만들기도 하였고 부족하지만 점차 변화하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기에 기쁘게 생각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싶습니다. 체력, 건강, 교육 등 하나하나 발전해나가며 가족분들과 함께 빛맞추어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시간이 흘러 언젠간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저의 사회복지사로서 지내온 길이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먼훗날 현실이 될 때까지 힘내서 걸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최원준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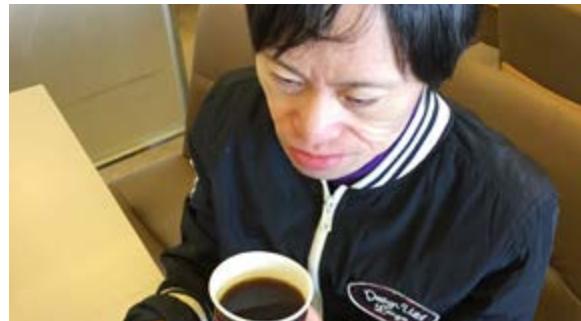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성촌아카데미 신입생 2기 모집!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성촌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경제학교, 요리교실, 미술교실, 봉사자아카데미, 책 읽기 모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성촌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연락주세요. 인원 수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문의 : 032)422-0573



sungchon



♥ 좋아요 5,566개

sungchon #아메리카노 #악마의 유혹 #강릉 1박2일

1박2일로 강릉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가는 둘째 날 바다에 갔다. 햇살이 강렬해서 버스 안에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같이 기자고 하여 버스에서 내렸다. 커피숍 의사에 앉아서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컵을 주었다. 향을 맡아보니 고소한 향이 나서 한 모금 먹어봤다. “이게 뭐야?” 웃으며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니 “아메리카노예요. 커피!”라고 알려주었다. 달달한 빵과 같이 먹으니 꿀맛이었다. 아메리카노를 기억했다. 집에 가서 사먹어야겠다.

sungchon



♥ 좋아요 6,005개

Sungchon #나는 강사다 #미술교실

성촌의집에는 미술교실 프로그램이 있다. 가족들과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 미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나는 학가로서의 경력으로 강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느덧 익숙해졌다. 아이들이 훨체어를 탄 내 모습에 어색해하지 않고 강사님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며 수업에 참여하고 우리 성촌의집 동료들도 나의 수업에 잘 따라와 주어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남은 수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다.



sungchon



♥ 좋아요 4,576개

sungchon #이웃사촌!! #성촌아카데미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누군가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인데.. 누구지?? “저 미술교실에 참여하는 윤주예요”. “아~~~안녕” 집에 오는 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걸어가서 좋았다. 직원이 ‘이웃사촌이 생겼네요.’라고 얘기하니 웃음이 났다. 지금도 웃음이 난다. 나도 이웃사촌이 생겼다.

sungchon



♥ 좋아요 3,585개

sungchon #물이야!! #물바다

옥실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수리를 위해 사람을 불렀다. 이것저것 먼저보더니 갑자기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옥실이고 방이고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물이야!” 주변 사람들이 헝겊히 달려왔다. 수리하시는 분이 수도가 터졌다며 도움을 요청해서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도 물바다가 된 방을 열심히 닦았다. 구슬땀이 날 즈음 수도밸브를 잡았다. 다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서로를 바라봤다. 피식 서로 웃음이 났다. 다행히 수도꼭지는 잘 교체가 되었고 AS기사도 미안하다고 했다.



동상이몽!

同 床 異 夢!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다!



자유롭게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으시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우리는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아래의 상황들을 겪어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해야 한다!



VS

#1.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먹는 얘기하니 벌써 침이 고이네요~ㅋ 당뇨가 있는 가족 한 분이 어느 날 식당에서 “아니, 내 밥은 왜 이렇게 적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당조절이 어려워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갑니다. 그런던 어떤 날... 외출 후 돌아오는 길에 신난 얼굴로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빠져나온 것은 초코파이 상자였습니다~;; “아~ 먹는 것 조절해야 하는데;;”, “내가 먹고 싶어 샀어요. 다 먹을거예요.”, “아~ 그럼 안되는데;; 대신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드세요~” “(환한 얼굴로) 네” 이런 즐거움을 때로는 건강을 위해 자제해야 하고 제한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서글프네요~ㅜㅜ

운동하기 싫다! 귀찮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VS

#2. 여름이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식사와 운동이죠! 식사는 위에서 언급했으니... 운동얘기를 해볼까요. 시작도 전에 온 몸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드네요;; 체중감량이 필요한 가족분이... “나 살 뺄거예요.”, “오~ 정말요?? 응원할테니 열심히 하세요. 그럼 허리랑 무릎 아픈 것이 좋아질 거예요. 화이팅!!^^”. 그러던 어느 날 물리치료실에서... 러닝머신에 올라가면서 “살 뺄거예요.”,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해요~”, “네~^^” (3분 후)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며 “끝!”, “벌써요??;;”, “아~ 힘들어.. 안해!!”, “운동이라는 것이 힘든 부분도 참고 땀도 흘려야 효과가 생겨 살이 빠져요~;;”, “살 안빼.. 힘들어요~”, “허리랑 무릎이 좋아지려면 의사 선생님이 운동해야 한다고 했자나요.”, “아~ 몰라.. 힘들어! 안해!”, “그럼 아파도 난 몰라요~;;” 운동을 해 본 사람이라면 운동이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운동이 힘들어 안하고 있어 배가 나오고 있네요~ㅜ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원하는 삶이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하는 마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쩜 평생의 숙제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세요??

별마을에서는 오늘도 가족분들과 직원들이 아옹다옹, 티격태격, 투닥투닥...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조명규 사회복지사]

미술관은 살아있다

<떨어지는 것들>

떨어지는 낙엽들은 걸으로 보기엔
시 들고 말하 보이지마
직접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고 촉감이 좋다.
내 마음도 부드럽고 촉감이 좋다.

PHOTO BY KIM MI KYEONG



<자전거가 타여>

애들이 자전거가 타여 자전거가 운동하니가 자전거가 운동하기 운동하며
자전거가 운동하기 운동하며

PHOTO BY KIM MI YOUNG



“^나_나”

항상 놓은 곳에 올라가 아래의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는 꿈을 꾼다.

PHOTO BY WON YONG SUNG



Q. '별마을이야기(소식지)'는 누가 만드나?

A. 소식지편찬위원회가 만든다. 성촌의집에는 '별마을이야기(소식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식지편찬위원회'다.



김기철, 조명규 사회복지사, 이향란 사무국장, 유성우, 이용자,
장연희 영양사, 장아름 사무원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일을 한다. 거기에 개인 성향도 다르다. 이런 다름이 특별한 힘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1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열정!!ㅋㅋ 이런 것들로 인해 멋지고, 알차고, 재밌는 '별마을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화자찬인가??ㅋㅋ) 평상시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담당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외친다.

"**소식지 발간 시기가 얼마나 남지 않았나요.**" 을 것이 왔구나! 손에는 땀이, 얼굴은 경직된다. 하지만 금새 체념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회의실에 모인다.



누군가 입을 연다. "이번 소식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순간 정적과 함께 다들 고뇌에 빠진다. 음... 음... (이것이 창작의 고통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1시간 후) "아! 이번에는 ○○○ 이야기를 담으면 어떨까요?", "오~ 그거 좋다!! 대박!!" 우린 연신 박수와 환호성을 지른다.

소식지는 이상하게 매번 시작이 참 어렵다. 단순 정보나 사업소개가 아닌 이용자, 성촌의집의 삶을 작은 종이 16페이지에 담는다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회의 시간이 지날수록 단어가 문장이, 문장이 이야기가, 우리가 담고 싶은 삶의 이야기가 나온다.

길고 긴 마라톤 회의를 마치면 각 코너의 내용과 디자인이 결정된다. 이제는 각 코너 원고를 작성해 줄 직원들을 섭외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다른 직원들은 우리를 피한다;; "○○님!, ○○님!..." 대답이 없다~ㅜㅜ



바쁜 업무에 원고까지 작성하려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삼고초려라는 한자성어처럼 우리는 찾아간다. 원고가 나올 때까지~ㅋㅋ

그렇게 해서 받은 원고는 내용 및 글자 수 검토, 내용에 맞는 사진 선별 등 편집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원고를 만든다.(우리만의 생각일지라도^^); 이 기간에는 신기하게 흔머리가 자란다~;; 그리고 원고와 디자인 초안을 제작업체에 맡긴다. 우리는 초초하게 기다린다. 첫 번째 시안이 나온다. 확인한다. 수정 요청한다. 두 번째 시안이 나온다. 확인한다. 수정 요청한다. 세 번째... 몇 번의 반복을 거쳐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지가 나온다.



"**별마을이야기 내용 너무 좋아요.**", "**디자인 예뻐요.**", "**이용자와 성촌의집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등 격려와 응원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우리는 힘든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끼며 소식지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별마을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식지편찬위원회 조명규 사회복지사 -



별마을 메모리즈



여러분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셨나요?

성촌의집 가족들은 사전 모의투표를 통해 준비를 하고 선거 당일 우리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3/25(토), 보호자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촌의집 운영 및 이용자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랑이냐? 스트라이크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발 한 번이라도 스트라이크가 나와라~ㅋ
하지만 모든 함께여서 즐거웠던 하루!^^

운동은 막무가내로 하는 것 보다 정확한 자세, 운동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답니다. 대우휘트니스와 함께한 스포츠 활동! 하나님 데! 하나님 만 더! 하나님
만 더한다며...10개는 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상쾌했던 하루였습니다~^^

♥ 3군수 지원 사령부 | 2017년 04월 13일(목)

봄맞이 겨울이불 세탁!!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겨울동안 사용하였던 이불 및 요를 정리하여 깨끗하게 세탁해주신 3군수 지원 사령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동행



♥ 동그라미 봉사단 | 2017년 04월 09일(일)

노래방프로그램을 통해 별마을 가족들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신나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동그라미 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반딧불 봉사단 | 2017년 04월 29일(토)

녹색공간과 옥상정원의 환경정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주셔서 쾌적하고 예쁘게 다듬어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습관~ 행복한 나눔^^

배우 이영아를 비롯해 여자 연예인들의 머리카락 기부 소식이 연일화제입니다. 기부하는 방법에도 종류가 많고 작은 소소한 나눔 또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너무나도 고마운 손길이 됩니다.

우리도 소소한 나눔 실천 어렵지 않아요~

올 여름은 다른 해보다 더 무덥고 기간도 길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촌의집 가족들이 시원하고쾌적한 여름을 보내기엔 냉방용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촌의집 가족들이 보다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용품(선풍기, 에어컨 등등)을 후원해주세요.

물품후원 시 해당되는 가격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연말에는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똑똑한 재테크 누려보세요~~



냉방용품!!



별마을 이웃사촌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가정초등학교 4학년 조나단입니다. 2016년 아빠가 “장애인분들과 자원봉사를 해보면 어때?”하고 권하였을 땐 장애인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 망설였지만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 용기 내어 ‘별마을공작소’를 통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전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장애인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별마을공작소’를 통해 장애인분들과 같이 놀고, 사진 찍다보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조카처럼 대해 주셔 정말 따뜻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마을공작소’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날 엄마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장애인분들이 친구 같고..어쩔 땐 아이 같고... 거부감도 안 들고 좋아요. 친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라고 했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저와 같은 기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2017년에는 형, 누나 그리고 새로운 사회복지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나단 자원봉사자]

♥ 저는 매주 금요일 성촌의집에서 만들기 프로그램과 한글교육을 지원하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소속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사회봉사 수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기관에서 저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주로 아동 혹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해왔기에 성촌의집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들기 프로그램과 한글교육을 진행해본 결과, 이용자분들이 생각보다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주셔서 저는 제 선택에 만족했고 또 뿌듯했습니다. 성촌의집 자원봉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권에 대해서도 한층 더 성숙하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길목에서 접한 성촌의집에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심미소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69-75 3층

기다리아저씨는 지역사회에서
뒤에서 뚝뚝히 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시는 곳을 찾아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 인천농산물주식회사

♥ 농산물주식회사

농산물주식회사에게 '성촌의집' 이란?

끌림은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 및 '따뜻한 손' 프로젝트를 통한 훌몸어르신들을 위해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촌의집과 인연을 맺어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이용자)과의 추억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움 및 의사가 존중되어 일상 및 여러 프로그램 지원이 들어가는 성촌의집... 그래서인지 성촌의집의 이용자들은 항상 밝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을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성촌의집의 후원자로, 가까운 이웃으로 이용자와 함께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자, 직원 모두 건강하세요.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이용자)과의 추억은?

김치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계절 김치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요청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최상의 상품을 찾아 당일 김장재료를 살고 성촌의집을 가는 날이면 이용자분들이 직원과 함께 재료를 정리하며 항상 감사하다며 웃으며 인사할 때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계절김치 재료를 후원하면서 방문때마다 "오이김치 잘먹었어요", "깍두기가 맛있었어요" 이런 감사 인사를 해주는 성촌이용가족분들을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후원자 명단 (2017.03.01-2017.05.17)

+ 신규후원자를 소개합니다 +

김호연, 변진선, 이상진, 전경제, 최경자, 한연숙, 끌림니트디자인학원

+ 비지정후원금

개인 : 고종원, 김경진, 김덕진(건강길약국), 김용애, 김영준, 김현보, 박점숙, 박현철, 신진자, 유계월, 유재덕, 이덕재, 이미복, 이향란, 이춘희, 윤창호, 임명선, 장아름, 장연희, 정민영, 정현주, 조성란

단체 : 교촌에프앤비, 인천중앙교회, 오내진구성폭력상담소, 익산유압, 아프로파 이낸셜 구월지점, 푸드마스, 국민은행 동암지점

CMS : 김인수, 김현수, 김현경, 박경진, 박미정, 변문순, 소형순, 손대원, 이선, 이수일, 이은주(부평우체국), 이은주(성촌의집), 이구형, 정민호, 조광매, 조근태, 조성순, 조성숙, 정금자

+ 지정후원금

이용자결연후원금 : 유정운, 이은주, 임미정

시설운영후원금 : 해피빈 후원자 아이디 (김이수, 아이리스, 이미복, 이은주, 작도녀, sw, salidore)

장애인의날 이용가족 나들이 진행 후원금 : 태은실

+ 후원물품

개인 : 권영수(비료), 김아람(커피머신), 김수진(청소기), 김기철(구두, 청소기), 김용애(주방용품), 임명선(시설환경구성물품), 장아름(edi사용료), 전경제(중고책), 한연숙(간식-음료수)

단체 : 길병원치과센터(치약칫솔세트), 대우휘트니스(간식-치킨), 대만빵집(간식-빵), 동그라미봉사단(간식-생필품), 시흥현대모터스(차량수리및점검), 사랑나눔봉사단(중식식재료), 인천유나이티드(축구티켓), 인천농수산물주식회사(봄김치재료), 부평기기(영화관람권), 주안8동성당(간식-삶은계란), 크롬(간식-빵), 태양봉사단(중식식재료)

+ 후원모금함 현황

- 부평우체국, 갈산동우체국, 동암우체국, 부개동우체국, 부평6동우체국, 부평대로우체국, 북인천우체국, 삼산동우체국

- 24시전주콩나물국밥, 건강길약국, 동암프라자약국, 동암중앙치과, 라성약국, 보드랑장식, 벨엘약국, 부성해물탕, 시흥현대모터스, 차우차이짬뽕, 촌집보쌈, 까레몽삼산점, 현해어뉴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17.01.01~05.17)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15,741,400
비지정후원	16,753,010
접수입	29,457
전년도이월금	26,264,081
	기타후생경비
	225,030
	여비
	234,400
	수용비및수수료
	883,460
	공공요금
	2,452,470
	제세공과금
	1,220,000
	차량비
	110,640
	기타운영비
	1,199,000
	연료비
	3,251,84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6,903,850
	지역자원연계사업비
	22,000
	영양관리사업비
	798,000
	인권사업비
	70,000
	이월금
	41,417,258
합계	58,787,948
	합계
	58,787,948

자원봉사자 명단 (2017.03.01-2017.05.17)

개인

당다연, 박소연, 고은서, 김도영, 강다은, 심미소

신규단체

상정중봉사단 : 이용가족 스포츠활동 지원

신미옥 단장, 나승진, 김지우, 김지수, 안형진

신명상정식정고 봉사단 : 이용가족 스포츠활동 지원

변진선 단장, 김태일, 성홍규, 윤유라, 이다현, 이은서, 한윤주

단체

DK도시개발봉사단 : 시설 환경정리 지원

김관은, 조재만, 김형남, 김효종, 배성철, 이정완, 박영찬, 김호중, 김진성, 김대중, 한명희, 이성현, 이유성, 최은희, 황민선, 안선정, 박종현, 김용관

대우휘트니스나눔회 : 이용가족 스포츠활동 지원

김시현 관장, 강찬양, 김미옥, 김학승, 김희숙, 두강언, 두민희, 방희진, 안정호, 윤미숙

도란도란봉사대 : 이용가족과 공연

송태영 단장, 김경자, 김재학, 김학수, 김훈자, 박종희, 신정아, 윤석규, 이선균, 한종덕

반딧불 봉사단 : 시설을 유지관리 지원

강원희 단장, 이동철, 김상래, 김광태, 김종숙, 김영식, 류기준, 이영근, 이근중, 김나미, 윤성화, 임갑수, 장의영, 이인자, 김미숙

사랑나눔봉사단 : 이용가족 종식봉사

이종서 단장, 김연숙, 김은주, 김지연, 모윤숙, 박연화, 윤하늘, 이기현, 이병섭, 이빛나, 이하은, 전성우, 전서현, 전지현, 진학일, 최종성, 김영배, 김상철, 박미숙, 서금자, 이다민, 전옥남, 최건범

상정중 우리들봉사단 : 이용가족 정서지원

김호연 단장, 강건주, 강건휘, 김민교, 김이수, 김효주, 김형진, 박상은, 유나경, 이은서, 이지원, 정수연

육군제3군수지원사령부 : 이용가족 겨울 이불 세탁 및 건조 지원

한국희망진짓기운동본부 동그라미봉사단 : 이용가족 나들이 지원

오헌주 회장, 최계한, 나태현, 김오분, 임충휴, 이은희, 이주현, 정휘영, 정유담, 이시연, 방준옥, 김인선, 김경숙, 최태문, 신철균, 김숙영, 전정숙, 신현범, 정나나

한국희망진짓기운동본부 태양봉사단 : 이용가족 종식봉사

이명식 회장, 오현주, 이영로, 김준숙, 나영복, 김영분, 심명임, 김은심, 백숙림, 김정은, 김점업, 심연섭, 황세동, 김지우, 김수민, 김지혜, 흥지현, 백나현

-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 민 은 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 협 은 행 301-0072-5929-41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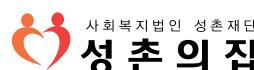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별마음이야기 2017년 두 번째 호 (통권19호)

발행처 | 성촌의집 | 발행인 | 이은주 | 편집인 | 이향란 |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아름, 장연희,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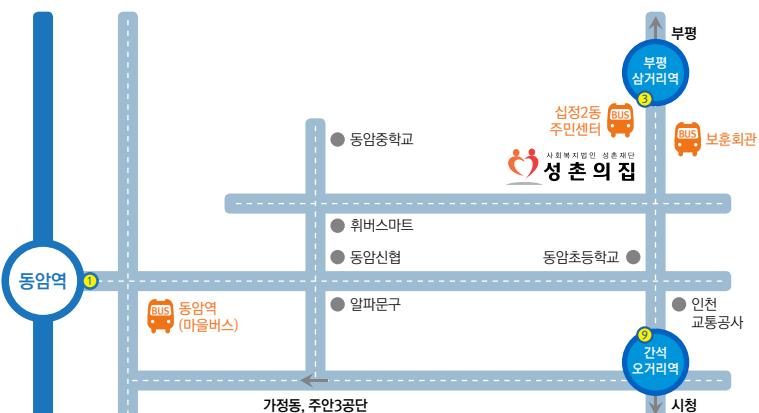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활체어,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이마트 마일리지 후원

이마트 쇼핑 후 영수증으로 이마트 매장에 비치된 적립기 또는 이마트 모바일앱 지역
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나눔활동입니다.(이마트지점 : 인천점 0393)

